

[특집]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오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간 함평군 함평읍 엑스포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08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생태 환경 및 곤충과 연계된 학술과 교육·전시·문화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주 행사장인 함평천의 33만여㎡에 이르는 생태하천에는 습지공원과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100여종의 꽃창포, 30여종의 초화류가 만개한다. 행사장 진입로 확장과 1만대 동시주차 공간 확보, 비데설치 화장실 등 관람객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석형 조직위원회 이사장

“함평군 600년 역사상 가장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난 10년간 나비축제 등 큰 행사를 치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석형 조직위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석형(사진) 함평군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자신했다. 이석형은 “엑스포 입장권 예매 실적이 당초 예매 목표로 정한 60만장을

“예매만 70만장...성공 엑스포 확신”

초과해 70만장에 달한다”며 “엑스포 기간중 관광객 200만여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함평읍 엑스포공원 일대 109만㎡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함평군이 국비와 도비 등 353억원을 들여 2년여 동안 준비했다.

이석형은 “엑스포장내 전시관 어느곳 하나 빼놓을 수 없지만 ‘황금박쥐 생태관’과 ‘친환경 농업전시관’을 둘러 보면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비축제 전도사로 통하는 이석형은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 10년간 나비 축제를 통해 돈버는 축제양식을 도입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비축제의 성공에 힘입어 기자자동차 협력업체, 대선제분, 성음 친환경인조잔디공장 등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비·곤충 R&D사업을 통해 나비·곤충의 산업화 방안을 강구하고 농의 소득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곤충, 인간, 자연의 어울림

생태 유토피아를 꿈꾸다

▲엑스포공원 시설= 109만㎡의 엑스포공원은 동화속에 나오는 신비한 나비·곤충나라 컨셉으로 소나무·수국·창포·꽃양귀비·아이비 등의 교목, 관목, 초화류, 수생식물, 지피식물, 덩굴식물 등 210만여본의 각종 식물이 심어져 환상적인 조경 및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다채로운 전시관과 홍보관, 기념품 매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무대 행사는 화양근린공원에 위치한 주무대와 주제관 앞의 간이무대, 시가지에 위치한 나비무대 등 3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국제곤충관 입구와 주제관 앞 등 행사장 길목마다 대형 곤충 조형물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전시 행사=엑스포공원 곳곳에 위치한 전시관에서는 풍성한 볼거리의 전시행사가 마련돼 있다.

주제관에서는 엑스포 주제 영상물인 애니메이션 ‘아하! 나비구조대’ 상영 등 관람객들이 즐겨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인간과 곤충이 공존하는 인류의 미래를 만날 수 있다.

또 국제나비생태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포 나비와 일본의 왕나비를 비롯해 국내외 39종 33만 마리의 살아있는 나비들이 군무를 펼치고 국제곤충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헤라클레스 왕잠수풍뎠이 등 국내외 92종 3만4천마리의 곤충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귀여운 미니이처로 조성된 숲속 곤충마을의 사계를 만날 수 있는 숲속의 곤충마을, 세계적인 환경 프로젝트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관 등 둘러볼 곳이 많다.

▲공연=디지털 선율에 춤추는 나비음악대, 가족 뮤지컬 ‘아름이와 다모이의 대모험’, ‘판타스티 나비 퍼레이드 세상’, ‘안데스 전통 민속공연’, ‘청소년 세계 문화 페스티벌’, ‘세계 최강의 비단이 깎를러 초청공연’, ‘타악 퍼포먼스 비트서클 공연’, ‘발리댄스’, ‘환상의 칸타타’ 등 빼놓을 수 없는 공연이 가득하다.

이밖에 중국 고궁 자전거 출타기, 추억의 7080 콘서트, 천연염색 패션쇼, 미스코리아 광주·전남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함평 나비와 함께하는 45일간의 비행 황금박쥐 생태관·곤충마을 등 볼거리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곤충 모형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위탁기자 jwji@kwangju.co.kr

▲체험 행사= 살아있는 곤충류와 희귀곤충 등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며 구입할 수 있는 나비·곤충 생태체험장을 비롯해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 10여종의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관찰하는 동물농장, 나비·곤충 연 만들기, 나비·곤충 탁본 쓰기 등 무료로 체험행사가 열린다.

▲“이것만은 꼭 봐야 한다”= 함평군은 2008 함평엑스포에서 놓치지 않고 봐야할 10선을 선정했다.

첫번째는 주제 영상 애니메이션 ‘아하! 나비구조대’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인 ‘SBAF’에서 최고 영예인 골든 플리밍고상 수상과 제 9회 전주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돼 수준을 인정받은 Full 3D 입체 애니메이션이다.

또 메인 전시관인 ‘주제관’과 화석전시관·국제나비·곤충표본관·한국토종민물고기 전시관 등을 갖춘 ‘금호관’, 국내외 92종 3만4천마리의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곤충관 등을 꼽고 있다.

이밖에 동물 디자인의 길모양이 눈길을 끄는 황금박쥐생태관, 숲속의 곤충마을, 친환경농업 전시관, 버드하우스 작품전시관, 디지털 선율에 춤추는 ‘나비 음악대’, 가족 뮤지컬 ‘아름이와 다모이의 대모험’ 등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문의 전화 0505-322-2008.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TIP 관람안내=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매표는 오전 8시 30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각 전시관과 공연장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입장권 가격은 어른 1만5천원(30 이상 단체 1만3천원), 청소년 1만1천원(9천원), 어린이 9천원(7천원), 유아(만 4~6세) 6천원(5천원) 등이 다. 주차는 무료.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

황금박쥐생태관의 순금 162kg과 순은 281kg으로 제작된 대형 조형물 ‘함평천지 운기일주 대황금박쥐’도 빼뜨릴 수 없는 볼거리다. 가로 1.5m, 높이 2.18m 크기로 거북형상의 기단위 원형안에 날개를 활짝 펼친 황금박쥐 5마리를 형상화했다. 흥익대 디자인공학연구소가 3년에 걸쳐 만들었으며 순금 구입에만 27억원이 들었다.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함, 시외 농장부지 급히 구함, 상가 건물 구매, 수익성 좋은 원룸.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평등 3200P, 4200P, 4800P, 5200P, 5800P, 6200P, 6800P, 7200P, 7800P, 8200P, 8800P, 9200P, 9800P, 10200P.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011-612-3421. 경제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감정가50%공시지가50%이하 물건 긴급매매, 현금투자 최우선 긴급매매.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6-632-5659. 사할부지 및 사할(절), 매매·교환, 임대·보증금, 매매·교환, 투자.